

음주·흡연자, 뜨거운 차 마시면 식도암 위험 증가

따뜻한 차 한 잔은 생활 속 긴장도 풀어주고 때론 여유도 가져다 준다. 하지만 흡연도 하고 술도 마시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.

중국 북경대 연구진에 따르면 흡연과 하루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뜨거운 차를 마시면, 이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식도암 발병률이 5배나 높았다.

북경대 연구진은 중국 성인 456,000명을 대상으로 식도암 발병 여부를 9년간 추적 조사했다. 그 결과, 흡연, 음주, 뜨거운 차의 세 가지 습관을 모두 가진 사람들 의 식도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. 차와 음주 혹은 차



과 음주를 하면 그 상처가 더치면서 발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"고 추정했다.

세계보건기구(WHO)에 따르면 섭씨 65도 이상의 음료는 식도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.

사진=shutterstock

와 흡연 등 두 가지 습관을 가진 경우에도 발암 가능성은 높았으나, 세 가지 습관 모두를 가진 사람보다는 낮았다. 그러나 뜨거운 차만 마시는 경우, 발암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다.

연구진은 "이번 연구가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다"라면서 "뜨거운 차가 식도의 조직을 손상 시킬 수 있고, 여기에 흡연

하루 와인 한 잔, 우울증 치료에 도움



와인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뉴욕 마운시나이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쥐 실험 결과,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우울증 세 회복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팀은 이 화합물이 염증을 줄이고 뇌 속 신호 전달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연구팀은 12마리의 쥐에게 포도 씨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인 폴리페놀을 먹였다. 또 곰팡이 감염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는 트랜스-레스베라트를 성분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. 그리고 이 쥐들을 10일 동안 매일 10분씩 공격적인 쥐들과 함께 있게 하고 꼬리를 매달거나 수영을 시키는 등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었다.

그 결과, 포도 화합물을 섭취한 쥐들 가운데 70%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서 회복력이 생겼음을 의미한다.

반면에 화합물을 먹이지 않고 실험한 쥐들은 40% 이하에서만 회복력을 보였다.

연구팀의 줄리오 마리아 파시네티 교수는 "이번 연구는 포도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우울 및 불안증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"고 말했다.

사진=shutterstock

뇌 건강, 채소 섭취량에 달렸다

매일 녹색 채소를 먹으면 뇌가 많게는 11년은 더 젊게 유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미국 시카고 러쉬대학과 터프츠대학 공동 연구진은 평균 나이 81세(58~99세) 성인 남녀 960명의 녹색잎채소 섭취량을 10여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.

시금치, 케일, 양상추 등과 같은 녹색잎채소에는 엽산, 루테인, 질산염, 비타민K 등이 풍부하다.



수치로 분석됐다.

반 컵 정도 분량이었다. 이와 함께 연구진은 1년마다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검사했다.

그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뇌 건강 점수는 매년 떨어졌지만,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뇌 건강 점수가 연간 0.05% 포인트나 더 감소했다.

이 차이는 11년에 달하는

연구팀의 마사 모리스 박사는 "매일 채소를 먹는게 뇌 건강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"면서 "하루 1~2번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"고 조언했다.

사진=shutterstock

PREMIER TAX GROUP

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

- 세금보고 ■ 법인설립 ■ 해외자산보고
- 연체세금 해결 ■ 세무감사대행 ■ 상속, 증여세금보고

예약 후 방문
상담 가능

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
JUNGHOON KIM
E.9923003@gmail.com
C.714.335.8256
카톡 ID: Junghoon123

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(714)530-2033
8942 Garden Grove Blvd. #203, Garden Grove, CA 92844